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4, 813 - 832

## 스트레스, 성격특성과 우울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기 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안 정 숙\*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채 규 만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Cloninger(1994)가 심리생물학적 모델을 근거로 개발한 기질과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이용해, 우울증집단과 비우울증집단간의 어떠한 성격특성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TCI에서 측정하고 있는 7가지의 성격차원에서 우울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 주도성(self-directedness)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서, 우울증의 치료적인 개입전략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OCU(Open Cyber University)로 「성행동의 심리학」 수업을 듣는 전국 약 14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중 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47명의 자료를 수집하고(남자 258명, 여자 189명) 분석하였다. 우울증과 비우울증집단간의 TCI의 7가지 성격특성의 하위척도별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우울증집단이 비우울증집단에 비해 위험회피(harm avoidance),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사회적 민감성(reward-dependence), 자기 주도성(self-directedness), 연대감(cooperativeness)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특히, TCI 7가지 성격특성 중에서 자기 주도성(self-directedness)이 우울증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성(self-directedness)의 조절효과결과, 여자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성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울증 치료시 개입전략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여자의 경우 우울증 치료시 자기 주도성(self-directedness)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TCI, 스트레스, 성격특성, 우울증, 자기 주도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정숙,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6-6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임상심리과, 전화: 031) 760-9470, E-mail: paintedlife@hanmail.net

2003년 미국 대학보건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의 40% 이상이 일년 중 적어도 한번은 “아무것도 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하다”고 말했다. 30%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위크, 2004). 또한, 영국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Lewis Wolpert 박사가 진행하는 우울증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의 70% 이상이 일생동안 가벼운 우울증을 경험하고, 10% 정도는 심각한 증세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우울증은 그 정도에 있어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한 기분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 나아가서는 자살기도를 포함하는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인간의 정신건강이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1세기 인류 건강 최대의 적 가운데 하나로 우울증을 제 1위로 지적했기에 그 심각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들에서는 우울증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여기고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과의 의미있는 관계는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보고되어왔다(Billings, Cronkiet, & Moos, 1983; Kanner, Coyne, Shaefer, & Lazarus, 1981; Sarason, Johnson, & Siegal, 1978, 배정희, 1997에서 재인용)

그러나, 실제로 스트레스 그 자체가 우울증을 예측하는 변량은 비교적 크지 않으며(Kessler, Price, & Wortman, 1985; Kovasa, Maddi, & Kahn, 1982; Smith, Boaz, & Denney, 1984),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에 부딪힐 지라도 임상적으로 우울해지지 않는다고 한다(조현주, 2000). Gary(2004)의 연구에서도 전체 스트레스와 우울기분간은 약한 부분상관을 보이며 중

종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그 자체가 우울한 기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에 대한 중재변인으로서 개인차 변인인 취약성 개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중재하는 변인으로서 역기능적 태도와 귀인, 통제 소재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 등의 인지적 소인들을 연구해왔다(김명권, 1984; Olinger, Kuioer, & Shaw, 1987; Robins & Block, 1989; Robins, Block, & Peselow, 1990). 그러나, 우울증을 자주 경험하게 하는 우울증 취약요인으로써 인지적 요인이 우울증의 선행조건인지 우울증으로 인해 발생되었는가의 쟁점은 남아있다. 즉, 부정적인 인지 유형이 우울증에 취약요인인지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Dykman, 1997; Gotlib, Kurtzman, & Blehar, 1997; Miranda & Gross, 1997, 조현주, 2000에서 재인용). 최근들어,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에 비해 좀 더 우울증을 자주 경험할 확률이 높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요인이며 그것은 성격이라는 사실이 주목 받아왔다(Kwon & Oei, 1992). 성격은 정서장애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써 언급된다. 성격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으나(Birren & Renner, 1977; Lu, 1994), 이에 관련된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우울증을 예측하는 성격 요인으로서 사회지향성(sociotropy)(Beck, Epstein, Harrison, & Emery, 1983; Scott, Harrington, House,

& Ferrier, 1996)과 자율성(autonomy)(Coyne & Whiffen, 1995) 위주로 초점을 두었다. 즉, 사회지향성(sociotropy)유형은 전반적인 목표가 타인과 친밀한 관계형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소한 거부행동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자존감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Robins와 Block(1988)에 의하면,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애착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을 한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했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대상을 상실하는 경우에 우울증에 빠진다. 반면 자율성(autonomy)유형은 완벽 주의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독재적인 성향을 말하며, 전반적인 목표는 행동과 통제의 자유이고 대인관계에 얽매는 것을 피하려는 성향이 특징이다. 따라서, 실재나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혹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에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김은정, 권정혜, 1998).

선행연구에서 성격특성으로써 주로 사용한 사회지향성(sociotropy)과 자율성(autonomy)은 연구들 간에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들면 Beck 등(1983)은 사람들이 직업적인 노력에서 좌절되었을 때는 자율성(autonomy)이 나타나고, 실연을 당했을 때는 사회지향성(sociotropy)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성격특성은 안정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서, Blatt와 Maroudas(1992)는 자율성(autonomy)과 사회지향성(sociotropy)이 인간의 초기 경험에 뿌리를 둔 불변 특성 혹은 영원한 특성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한 사람이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성격특성을 보인다고 제시한 Beck 등(1983)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 또한 Bornstein(1992)은 사회지향성은 우울에 취약한 요인이기 보다는 우울증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의 산물이라고 보고 하였다(조현주, 2000).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성격특성으로써 사용하였던 사회지향성(sociotropy)과 자율성(autonomy)의 개념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반해, Cloninger, Przybeck와 Svrackic (1994)가 심리생물학적 모델을 근거로 해서 개발한 기질과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이하 TCI)에서 측정하고 있는 7가지 성격특성들은 상황의존적인 특성이 아니라 보다 개인 내적인 안정적인 특성이라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Hirano, Sato, Narita, Kusunoki, Ozaki, Kimura, Takahashi, Sakado, & Uehara, 2002; Marijnissen, Tuinier, Sijben, & Verhoeven, 2002; Testsuya, 1999). Cloninger 등(1994)의 심리생물학적 모델은 4가지 기질(temperament)과 3가지 성격(character)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기질(temperament)은 자극에 대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성향으로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서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보이며, 인성발달의 원재료이며 기본틀이 된다. 4가지 측정된 기질차원들은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이하 NS), 위험회피(Harm Avoidance: 이하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이하 RD), 인내력(Persistence: 이하 P)이 있다(Clounger et al., 1994).

자극추구(NS)가 높은 개인들은 ‘탐색적인, 호기심 많은’, ‘충동적인’, ‘낭비벽이 있는’, ‘무질서한’ 특성이 높다. 위험회피(HA)가 높은

개인들은 걱정수준이 매우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쉽게 피곤해 하며, 낮은 사람이 있으면 매우 수줍어한다. 사회적 민감성(RD)이 높은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우 잘 애착하고 의존적이다. 매우 높은 인내력(P)을 보이는 사람들은 야망이 있고, 완벽 주의적이며 근면하다.

반면, 성격(character)이란 개인이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가, 개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가를 포함하는 자기개념(self-concept)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된 것이다. 성격(character)은 기질이라는 원재료를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을 받으며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성격은 기질에 의한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을 조절한다. 측정된 세 가지 성격(character) 차원들에는 자기 주도성(Self-Directedness: 이하 SD), 연대감(Cooperativeness: 이하 C),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이하 ST)이 있다(Clouinger et al., 1994). 높은 자기 주도성(SD)을 보이는 개인들은 책임감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으며, 내적자원이 풍부하고 자기 수용적인 특성이 높다. 높은 연대감(C)을 보이는 개인들은 다른 이들에 대해 공감을 잘 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관대하다. 높은 자기초월(ST)을 보이는 이들은 창조적이며, 자기 초월적이며, 우주와 통합적인 면을 보인다(Luty, Joyce, Muder, Sullivan, & McKenzie, 1999).

Clouinger 등(1994)은 성격의 생물학적 부분과 사회학적 부분을 통합하여 기질과 성격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였고, 모든 기질과 성격의 측면이 기분장애, 특히 우울증 발현에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Clouinger, 1997, 1986; 김영호, 2003에서 재인용). 김영호(2003)에 의하면 환자가 우울증에서 치료하고 회복된 후에도 정상인과 비교하여 높은 위험회피(HA) 점수를 보였다고 했다.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 후에도 여전히 우울증을 재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격(character)차원에서는 자기 주도성(SD)과 연대감(C)이 우울증 수준과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Hirano et al., 2002; Marijnissen et al., 2002; Testsuya, 1999). 또한 Marijnissen 외(2002)는 우울증 환자는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위험회피(HA)와 낮은 자기 주도성(SD)점수를 보이며, 항우울제 치료가 이러한 성격 특성들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단순한 약물치료 외에 다른 심리학적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이 시사된다.

특히, 우울증과의 관계에 있어 TCI의 7 가지 성격특성 차원 중에서 자기 주도성(SD)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서 보고되고 있다(Richter & Eisemann, 2002). Clouinger 등(1994)이 제시한 자기 주도성(SD)의 개념은 Beck 등(1983)이 분류한 자율성(autonomy)의 개념과는 의미론적 차이가 있다. Beck 등(1983)이 제시한 자율성(autonomy) 유형은 실패나 비난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최대화 하려고 노력하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보인다. 반면에, Clouinger 등(1994)의 자기 주도성(SD)은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으로, 단순히 실패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성취 지향적이고 완벽 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보다는 자

신의 한계에 대한 수용과 자존감 등을 포함하는 등 좀 더 성숙하고 자기 수용적인 성격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어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 TCI에 의해 측정된 자기 주도성(SD)이라는 특성은 1년 후 치료결과를 예측했던 유일한 성격 변수로 보고된바 있다. 폭식증이 있는 10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료전에 자기 주도성(SD)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나은 치료결과를 보였다. Cloninger 등(1994)에 따르면, 자기 주도성(SD)은 책임감, 목적의식, 유능감, 자기수용측면에 있어 한 개인의 성숙성(maturity)을 반영한다. 이들 특성들이 인지행동치료에 필수적인 특별한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치료과정에서 걸쳐 자기 주도성(SD) 점수 상의 유의미한 증가된 변화는 치료효과의 측정치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치료 성공에 필수적인 최적인 성격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듯 해 보인다. TCI와 우울증과의 관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결과는 자기 주도성(SD) 점수가 인지행동치료에 성공적인 결과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치료 역시 자기 주도성(SD)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Anderson, Joyce, Carter, & Buli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 등(1994)이 심리생물학적 모델을 근거로 개발한 기질과 성격 검사(TCI)를 이용해, TCI에서 측정하고 있는 7가지의 성격차원에서 우울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 주도성(SD)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이에서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Hirano et al., 2002; Marijnissen et al., 2002; Testsuya, 1999). 그러므

로, 현재 연구의 주요목적은 우울증의 스트레스-취약성(stress-vulnerability model)을 응용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성격요인중 자기 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개인별 성격 특성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성격특성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치료적 중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는 2004학년 2학기 OCU(Open Cyber University) 「성행동의 심리학」 수업을 듣는 전국 약 14개 대학(강릉대, 공주대, 동덕여대, 부경대, 부산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용인대, 인제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528부의 질문지 중 477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30부를 제외한, 나머지 447부(남자 258명, 여자 189명)를 이용하였다.

### 측정도구

**기질과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Cloninger 외(1994)는 생물사회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자극추구(NS), 위험회피(HA), 사회적 민감성(RD) 등의 세 가지 주요 성격적인 측면을 제시 하였고,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서 형식의 TPQ(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TPQ)를 만들었다. TPQ의 3가지 유형은 최근에 사회적 민감성(RD) 항목에서 인내력(P)을 세분화하고, 자기 주도성(SD), 연대감(C), 자기초월(ST)이라는 세 가지 성격유형을 추가하여 7가지 유형의 TCI를 만들었다. TCI는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Cloninger 등이 1994년에 제작하였다. TCI는 모두 240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예-아니오’의 선택형 질문에 답변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호(2003)가 번안해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단축형 기질검사(TCI 125)를 사용했다. 단축형은 총 1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김영호(2003)의 한국판 TCI 125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는 기질척도(NS, HA, RD, P)에 대해서는 .56-.80, 성격척도(SD, C, ST)에 대해서는 .69-.82였다. 본 연구에서 HA는 .80, NS는 .76, RD는 .74, SD는 .77, C는 .77, ST는 .83으로 나타났다.

**Beck의 우울증척도.** Beck(1967)이 개발한 BDI 한국판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문항을 이영호(1993)가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21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점수범위는 0에서 63점까지이다. Beck(1967)은 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경우울증은 10~15점, 우울증 16~23점, 중우울증 24~63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연, 1985).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집단을 구별하기 위한 절단점은 중한 우울증상태에 해당되는 16점으로 하였다. 신뢰도에서 이영호(1993)의 수정문항을 대학생 125명에게 실시한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는 .9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DeLongis, Folkman와 Lazarus(1988)가 사용한 척도를 김정희(1995)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4)’까지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각 항목에 대하여 그것이 오늘 하루 동안에 어느정도 걱정거리가 되었는지, 정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였다. 김정희(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는 .92였다.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 절 차

‘성행동의 심리학’이라는 OCU 인터넷 강의를 듣는 528명의 학생들에게 수업과제로 내주었고 과제 제출시에 시험점수에 인센티브를 주었다. 설문지가 들어 있는 파일을 리포트란에 게시해서 학생들이 다운을 받아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2주간에 걸쳐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 SPSS 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울증집단과 비우울증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s)을 실시하였고, 우울증집단과 비우울증집단간 TCI의 7가지 성격차원들의 하위 척도들간 차이를 알기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TCI의 7가지 성격특성들 중에서 어떠한 특성이 우울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TCI의 성

격특성 중 자기 주도성(SD)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우울증집단과 비우울증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

BDI 점수 16점 이상은 우울증집단으로, 16점 미만은 비우울증집단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에서만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표 1). 즉, 여성의 23.8%가 우울증집단에 속하는 반면, 남성은 13.6%만이 우울증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여성이 우울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2(1, N = 447) = 7.79, p < .05$ .

### 우울증과 비우울증집단의 TCI의 7가지 성격특성의 하위척도별 점수차이 비교

표 2에는 두 집단 간의 TCI의 7가지 성격특성들의 하위척도별 평균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하

위척도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위험회피(HA)가 비우울증집단보다 우울증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다,  $t(445) = -4.483, p < .05$ . 즉, 우울증 집단이 비우울증집단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며, 비사교적이고, 쉽게 피로하기 쉬운 성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자극추구(NS)의 점수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울증집단이 비우울증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45) = -2.172, p < .05$ . 총 4개의 하위척도 중 NS3과 NS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 더 무절제하기 쉽고 좌절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 민감성(RD)은 우울증집단이 비우울증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t(445) = 2.208, p < .05$ . 하위척도 중 RD3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울증집단이 타인에게 친밀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섯 번째, 연대감(C)도 우울증 집단이 비우울증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t(445) = 3.900, p < .05$ , 하위척도 중 C4를 제외하고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우울증 집단은 타인에 대한 수용, 공감을 잘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불공정하게 남을 대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척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표 1. 우울증·비우울증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47)

인구 통계학적 변인		우울증 집단	비우울증 집단	$X^2$
		사례수(%)	사례수(%)	
성 별	남	35(13.6)	223(86.4)	7.79*
	여	45(23.8)	144(76.2)	

\* $p < .05$ .

**TCI의 7가지 성격특성과 우울증간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TCI의 7가지 성격특성 차원 중에서 우울증을 예측하는 변인을 찾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증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TCI의 7 가지 성격특성 측정치를 단계선택으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우울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

인은 TCI의 7가지 성격특성 척도중 자기 주도성 (SD)으로, 설명변량은 23%였다,  $F(1, 445) = 133.707, p < .05$ . 즉, TCI의 7가지 성격특성에서 자기 주도성(SD)이 우울증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자기 주도성(SD)이 낮을수록 우울증으로 발달하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자기초월, 사회적 민감성, 연대감, 위험회피가 그 이어서 제시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약하게 제시되고 있다.

표 2. 우울증집단과 비우울증집단의 TCI 7개 척도들의 하위척도들간 평균차이 검증

	TCI 차원들	비우울증집단 <i>M (SD)</i>	우울증집단 <i>M (SD)</i>	<i>t</i>
척도1	<b>위험회피(HA)</b>	<b>10.10(4.30)</b>	<b>12.49(4.46)</b>	<b>-4.483*</b>
	예기불안(HA1)	2.32(1.41)	3.05(1.44)	-4.191*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HA2)	3.20(1.38)	3.49(1.47)	-1.691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HA3)	2.51(1.48)	3.15(1.30)	-3.598*
	쉽게지침(HA4)	2.07(1.57)	2.80(1.57)	-3.579*
척도2	<b>자극추구(NS)</b>	<b>8.75(3.22)</b>	<b>9.74(3.76)</b>	<b>-2.172*</b>
	탐색적 흥분(NS1)	1.77(1.22)	1.64(1.19)	-.584
	충동성(NS2)	1.64(1.19)	1.78(1.21)	-.932
	무절제(NS3)	2.10(1.10)	2.41(1.09)	-2.322*
	자유분방(NS4)	3.25(1.44)	3.69(1.56)	-2.454*
척도3	<b>사회적 민감성(RD)</b>	<b>9.68(2.56)</b>	<b>8.98(2.75)</b>	<b>2.208*</b>
	정서적감수성(RD1)	3.30(1.15)	3.48(1.17)	-1.215
	친밀감(RD3)	3.62(1.42)	2.85(1.59)	4.273*
	의존(RD4)	2.76(1.34)	2.65(1.24)	.692
척도4	<b>인내력(P)</b>	<b>2.66(1.53)</b>	<b>2.75(1.54)</b>	<b>-.450</b>
척도5	<b>자기 주도성(SD)</b>	<b>13.77(4.78)</b>	<b>9.43(4.50)</b>	<b>7.432*</b>
	책임감(SD1)	3.74(1.26)	2.74(1.31)	6.422*
	목적의식(SD2)	3.09(1.41)	2.11(1.46)	5.595*
	유능감(SD3)	3.14(1.49)	2.14(1.37)	5.542*
	자기수용(SD4)	1.27(1.52)	.96(1.26)	1.919
	목적과 부합되는 좋은 습관(SD5)	2.51(1.41)	1.48(1.34)	6.403*
척도6	<b>연대감(C)</b>	<b>16.61(4.14)</b>	<b>14.63(4.04)</b>	<b>3.900*</b>
	타인수용(C1)	3.61(1.31)	3.23(1.39)	2.346*
	공감(C2)	3.46(1.29)	2.88(1.25)	3.075*
	이타성(C3)	2.66(1.01)	2.28(.97)	3.097*
	관대함(C4)	3.22(1.35)	2.91(1.28)	1.882
	공평(C5)	3.66(1.15)	3.34(1.24)	2.216*
척도7	<b>자기초월(ST)</b>	<b>5.35(3.50)</b>	<b>6.43(3.36)</b>	<b>-2.497*</b>
	창조적 자기망각(ST1)	1.70(1.49)	2.26(1.59)	-3.021*
	우주만물과의 일치감(ST2)	2.16(1.46)	2.53(1.42)	-2.020*
	영성수용(ST3)	1.50(1.34)	1.64(1.27)	-.865

\* $p < .05$ .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성(SD)의 조절효과검증**

표4에 제시된 여자의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지만, 자기 주도성(SD)은 우울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스트레스와 자기 주도성(SD)의 상호작용이 우울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주도성(SD)이 낮을 때 우울하기 쉬우며, 스트레스와 우울증간의 관계가 자기 주도성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스트

레스와 자기 주도성(SD)이 우울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나 스트레스와 자기 주도성(SD)의 상호작용은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를 지지하지 못하였다(표 5).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여자자료의 경우, 자기 주도성(SD)과 스트레스 수준에 있어, 상위 1/3의 집단과 하위 1/3의 집단으로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선을 구하여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자기 주도성(SD)이 낮은 여자가 자기 주도성(SD)이 높은 여자보다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리고,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자기 주도성(SD)이 낮은 여자가

표 3. TC의 7가지 성격특성 척도와 우울증간의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Beta	R <sup>2</sup>	ΔR <sup>2</sup>	F 변화량
우울증	SD(자기 주도성)	-.481	.231	.231	133.707*
	ST(자기초월)	.200	.271	.040	24.318*
	RD(사회적민감성)	-.137	.290	.019	11.679*
	C(연대감)	-.091	.297	.007	4.383*
	HA(위협회피)	-.094	.303	.007	4.118*

\*p<.05.

표 4.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성(SD)의 조절효과검증(여자)

독립변인	R <sup>2</sup>	ΔR <sup>2</sup>	B	SE B	Beta	t
스트레스(A)	.124	.124	-.448E-02	.078	-.094	-.571
자기 주도성(B)	.238	.113	-.896	.191	-.588	-4.693*
A×B	.257	.019	1.371E-02	.006	.364	2.193*

\*p<.05.

표 5.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성(SD)의 조절효과검증(남자)

독립변인	R <sup>2</sup>	ΔR <sup>2</sup>	B	SE B	Beta	t
스트레스(A)	.178	.178	.235	.132	.535	3.704*
자기 주도성(B)	.344	.166	-.371	.063	-.284	-2.816*
A×B	.350	.006	-6.55E-03	.004	-.235	-1.561

\*p<.05.

높은 여자보다 더 우울하여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자기 주도성(SD)이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성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Cloninger 등(1994)이 심리생물학적 모델을 근거로 개발한 기질과 성격검사(TCI)를 이용해,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간의 성격차원에 있어 차이를 보고자 했다. 두 번째로, TCI에서 측정하고 있는 7가지 성격차원에서 어떤 특성이 우울증을 가장 잘 예측하는지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TCI에서 측정하고 있는 7가지의 성격차원에서 우울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 주도성(SD)이 스트레스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우울증과 비우울증집단의 TCI의 7가지 성격특성의 하위척도별 점수차이 비교를 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우울증

집단과 비우울증 집단 간에 점수 차이가 나는 특성들은 위험회피(HA)와 자기 주도성(SD)척도였다. 즉, 우울증집단이 비우울증집단에 비해 비관적이고 걱정이 많고, 비사교적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매우 수줍어하는 성향이 있고, 쉽게 피곤해하고 지치기 쉬운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적통제소재감이 낮고, 목적의식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감과 기술을 발달하지 못하기 쉽고, 자기 패배적이고 의지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들은 Hansenne, Reggers, Pinto, Kijiri, Ajamier와 Ansseau(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김영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 결과들은 우울증 발달경로에 있어 위험회피(HA)와 자기 주도성(SD)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두 가지 성격특성은 임상(Brown, Svrakic, Przybeck, & Cloninger, 1992; Joffe, Bagby, Levit, Regan, & Parke, 1993; Eisemann & Richter, 2000; Svraki, Przybeck, & Cloninger, 1992)과 비임상 표본(Peirson & Heuchert, 2001; Richter, 1999)에서 모두 일관적으로 우울증 혹은 우울한 기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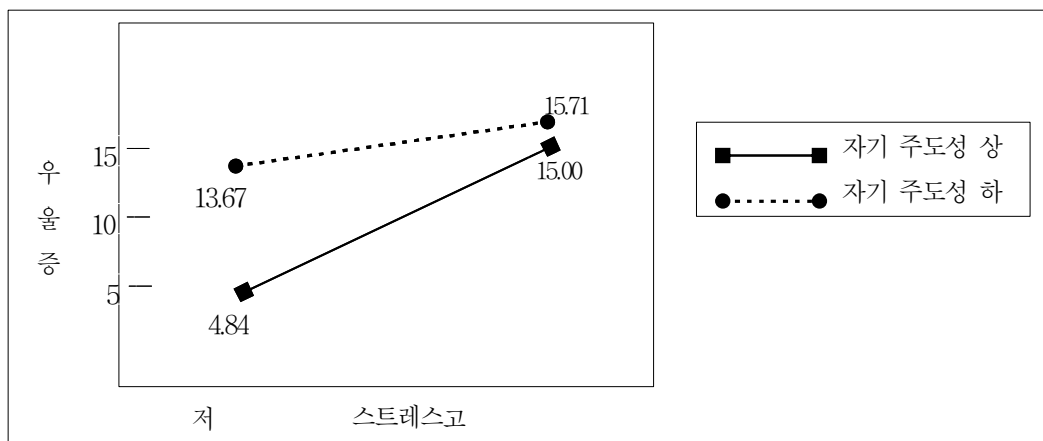


그림 1. 스트레스와 자기 주도성의 상호작용(여자)

으로 보고되었다.

위의 두 척도 외에, 우울증 집단에서 자극추구(NS)의 4개의 하위척도 중에서 무절제(NS3)와 자유분방(NS4) 척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약간 불일치되는 면이 있다. Hansenne 등(1999)은 자극추구(NS) 하위척도간에 전반적으로 별 차이를 안 보였다고 보고한 반면, 김영호(2003)는 무절제(NS3)에서 우울증 집단이 더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했다. 무절제(NS3)의 점수의 상승은 무절제성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 자유분방(NS4) 점수가 높을수록 좌절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 낮다. Richard 등(2003)에 따르면 높은 자극추구 성향은 약물남용, 초기 알코올 중독, 흡연 및 다른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자극추구의 상승은 우울증 맥락 내 또는 외에서 중요한 임상적 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및 약물중독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자극추구의 이러한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사회적 민감성(RD) 척도에서는 친밀감(RD3)이라는 하위척도만이 비우울증집단에 비해 우울증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Peirson과 Heuchert(2001), Hansenne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친밀감(RD3)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정서적 지지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과의 교류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차가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더 거부되기 쉽고, 이것은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연대감(C)에서는 하위척

도 중 관대함(C4)을 제외하고 나머지 척도들의 점수가 우울증 집단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점수가 낮을수록 관계에 있어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는 Hansenne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Peirson 등(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모든 연대감의 하위척도들과 우울증 점수간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연대감의 특성들은 또래나 동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립되기 쉬우며 이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기초월(ST)은 우울증집단이 비우울증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이는 Hansenne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Peirson 등(2001)의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창조적 자기망각(ST1)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loninger 등(1994)에 따르면, 자기초월감은 양면성이 있는데, 자기 주도성(SD)과 연대감(C)과 함께 발달한다면, 긍정적 감정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반면, 이 두개의 특성이 낮은 상태에서, 자기초월(ST)만 높다면 정신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위처럼, TCI의 위험회피(HA), 자기 주도성(SD), 자극추구(NS), 사회적 민감성(RD), 연대감(C), 자기초월(ST)의 하위척도들 상에서 우울증집단과 비우울증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layton, Ernst와 Angst(1994)는 신경증과 초조, 대인민감성의 증가, 정서 안정성의 감소 등 다양한 발병 전 성격특성들이 단극성 우울증 환자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졌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우울증 집단이 비우울 집단에 비해 높은 위험추구(HA), 낮은 자기 주도성(SD), 낮은 연대감(C), 높

은 초월성(ST) 등의 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두번째로, TCI의 7가지 성격특성과 우울증간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측했던 대로 자기 주도성(SD)이 우울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Peirson 등(2001)의 연구에서도, 자기 주도성(SD) 척도와 BDI 점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loninger(1991)는 낮은 자기 주도성(SD)을 가진 이는 “미성숙하고, 약하고, 망가지기 쉽고, 비난적이며, 파괴적이며,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기술했다. 위의 결과들은 낮은 자기 주도성을 가진 개인과 높은 우울한 기분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Richter 등(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자기 주도성(SD)이 가장 높은 영향력 있는 변수로써 드러났다. 따라서, TCI의 성격특성에서 우울증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해주는 변인은 자기 주도성(SD)이며, 자기 주도성(SD)이 낮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스트레스와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성의 조절효과를 보면, 남자의 경우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이에 자기 주도성(SD)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여자의 경우 자기 주도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주도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스트레스 상황을 도전할 만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자기 주도성(SD)의 발달수준에 따라 우울증에 덜 취약할 수 있다. 요컨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바로 우울증으로 연

결되지 않고 자기 주도성(SD)과 같은 개인내적인 성격변인을 통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자기 주도성(SD)의 조절효과는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 주도성(SD)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기 주도성(SD)이 우울증에 미치는 스트레스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우울증은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약물치료의 효과는 한시적이며 다시 재발률이 높다. 따라서, 재발 예방의 차원에서 자기 주도성(SD)과 같은 좀 더 개인 내적인 성격특성에 초점을 맞춘 심리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인지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과, 성격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 특성들이 우울상태와 독립적인지 아니면 상황의존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반면, Cloninger 등(1994)의 기질과 성격 검사(TCI)에서 측정하고 있는 성격특성들은 우울상태와 독립적인 개인 내적인 안정적인 특성이라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Hirano et al., 2002; Marijnissen et al., 2002; Testsuya, 1999). 그러므로, 자기 주도성(SD)의 조절효과는 우울증의 치료에 대한 함의성을 지녀 우울증 치료시 치료적인 개입전략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성(SD)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가 많지 않기에,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일반대 학생에게만 국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만이 아닌 일반집단이나 혹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임상환자 집단을 통해서 교차 타당화 연구를 통한 자기 주도성(SD)의 역할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조절효과에 있어 성별차이가 났는데, 성별에 따라 자기 주도성(SD)의 영향이 왜 다른가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방법에서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질문지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험자가 사회적 선호도에 따라 반응하거나 솔직하지 않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부주의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실제 면접을 통해 그 정도를 확인하거나 다른 우울 증진단검사를 동시에 사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자기 주도성(SD)의 조절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외의 우울증을 유의하게 예측했던 자기초월(ST), 사회적 민감성(RD), 연대감(C), 위험회피(HA) 등의 성격특성들의 역할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남재 (2002).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  
동적 사고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81-195.
- 김명권 (1984). 생활사건과 우울 및 인지에 관한 일 연  
구. 고대 석사학위 논문.
- 김연 (1985). 우울증의 귀인 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  
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호 (2003). 기질성격검사(TCI)와 우울증. 고려대의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옥희 (2004). 인간관계론. 박영사.
- 김윤희 (2001).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자기개념과 자기  
복잡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이 (1998).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역기능적  
태도와 스트레스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대인관계 취약성: 사  
회성 및 자율성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  
리학회지: 임상, 17(1), 155-169.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7(1), 44-69.
- 김현 (1996). 역기능적 신념과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뉴스위크 (2004.9.6). 캠퍼스를 위협하는 우울증. 646호
- 두금주 (2002).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자기효능감  
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희석, 손정락, 오상우 (1993).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역기능적 태도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효  
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79-196.
- 배정희 (1997). 성격과 생활사건의 일치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송숙 (2003). 내·외향성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및 학교적응도의 차이. 전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 송지영, 이광철 (2002). 여성에서 왜 우울증이 많은가?  
경의의학제18권 제3·4호
- 신경립 (2001). 한국여성의 우울증상 실태조사 연구. 대  
한간호학회지 제 31권 제 3호.
- 양현정 (2003).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대현 (1993). 심리학에서 본 자존심. 성원사.

- 심희옥 (1996). 대학생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주는 귀인 양식과 매개요인들, 자기존중감과 사회적 지원.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4호.
- 유성진, 권석만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특징. 심리과학, 9(1), 15-37.
- 이민규 (2000). 우울에 대한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47-257.
- 이영호 (1993). 우울증에 대한 귀인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수경 (1992). 우울에 미치는 성격유형과 생활사건 유형의 상호작용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위 논문.
- 조현주 (2000). 우울에 취약한 성격특성과 인지-행동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혜립 (1999). 대학생의 자기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183-197.
- Abramson, L. Y., Alloy, L. B., & Metalsky, G. I. (1988).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Toward an adequate evaluation of the theories validities. In L. B. Alloy(Ed.),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 (pp. 3-30). New York: Guilford Press.
- Alison, F. Garton & Chris Pratt. (1995). Stress and self-concept in 10- to 15 year-old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18, 625-640.
- Alloy, L. B., Hartlage, S., & Abramson, L. Y. (1988). Testing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Issues of research design, conceptualization, and assesment, In L. B. Alloy(Ed.),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 (pp. 31-73). New York: Guilford Press.
- Arieti, S. & Bemporad, J. (1980). The psychological organiza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365-1369.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J. Claton & J. E. Barr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290). New York: Raven Press.
- Beck, A. T., Epstein, N., Harrison, R. P., &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depress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illings, A. G., Cronkite, R. C., & Moss, R. H. (1983). Social-environmental factors in unipolar depression: Comparisons of depressed patients and nondepressed contro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119-113.
- Billings, A. 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Birren, J. E. & Renner, V. J. (1977). Health, behavior, and aging. In Birren, J. J., Munnichs, J. M., Thomae, H.(Eds.), *Institut de la Vie: Proc. World Conference on Aging: A challenge to science and society*. Section: Behavioral

- sc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Blatt, S. J., & Maroudas, C. (1992). Convergences among psychoanalytic and cognitive-behavioral theories of depression. *Psychoanalytic Psychology, 9*, 157-190.
- Brown, G. W., Andrews, B., Harris, T., Adler, Z., & Bridge, L. (1986).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16*, 813-831.
- Brown, G. W., Bifulco, A., & Andrews, B. (1990). Self-esteem and depression. III. Etiological issu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5*, 235-243.
- Brown, S. L., Svrakic, D. M., Przybeck, T. R. and Cloninger, C. R. (1992).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mood and anxiety states: A 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sychiatry Research, 26*, 197-211.
- Charles B. Anderson., Peter R. Joyce., Frances. Carter., Virginia V., and Cynthia M. Bulik. (2002). The Effect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Bulimia Nervosa on Temperament and Character as Measured by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Compr Psychiatry, 43*, 182-188.
- Chwalisz, K., Altmaier, E. M., & Russell, D. W. (1992). Causal attribution, self-efficacy cognition, and coping with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133-139.
- Cloninger, C. R. (1986). A unified biosocial theory of personality and its role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states. *Psychiatric Developments, 3*, 167-226.
- Cloninger, C. R., Bayon, C., & Svrakic, D. M. (1998). Measurement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in mood disorders: a model of fundamental states as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1*, 21-32.
- Cloninger C. R, Przybeck T, Svrakic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Washington Univ., ST Luis; Missouri: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 Cloninger, C. R. (1997). Integrativ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sychiatric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iatry, 60*, 120-141.
- Clayton, P. J., Ernst, C. and Angst, J. (1994). Premorbid personality traits of men who develop unipolar or bipolar disorders.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Clinical Neuroscience, 243*, 340-346.
- Compas, B. E., Grant, K. E., & Ey, S. (1994). Psychosocial stress and child/adolescent depression: *Can we be more specific?* In W. M. Reynolds & H. Johnston(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509-524). New York: Plenum Press.
- Costa Jr., P. T & McCrae, R. R. (1980).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Personality as a key to some issues in adulthood and old age*. In P. B. Baltes and O. G. Brim, Jr.(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Academic Press, New York, NY, pp. 65-102.
- Coyne, J. C., & Gotlib, I. H. (1983). The role of cognition in depression: A critical appraisal. *Psychological Bulletin, 94*, 472-505.
- Coyne, J. C., & Whiffen, V. E. (1995). Issues in personality as diathesis for depression: The case of sociotropy-dependency and autonomy-self-criticism. *Psychological Bulletin, 118*, 358-378.

- Culp, L. N., & Beach, S. R. H. (1993). Marriage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of self-esteem differs by gender*. Portions Presented at AABT.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86-496.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Dohrenwend, B. P. (1974). Problems in defining and sampling the relevant population of stressful life events. In B. P. Dohrenwend & B. S. Dohrenwend (Eds). *Stressful life events: Their nature of and effects*. New York: Wiley.
- Dykman, B. M. (1997). A test of whether negative emotional priming facilitates access to latent dysfunctional attitudes. *Cognition and Emotion, 11*, 197-222.
- Ekehammar, B. (1974). Interactionism in personalit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81*, 1026-1048.
- Fairbank, D., & Hough, R. (1979). Life event classification and the event-illness relationship. *Journal of Human stress, 5*, 41-47.
- Ferster, C. B. (1966). Animal Behavior and mental illness. *Psychological Record, 16*, 345-356.
- Gary Felsten. (2004). Stress reactivity and Vulnerability to depressed mood i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789-800.
- Gattuso, S. M., Litt, M. D., & Fitzgerald, T. E. (1992). Coping with gastrointestinal endoscopy: Self-efficacy enhancement and coping sty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133-139.
- Gotlib, I. H., & Kurtzman, H. S., & Blehar, M. C. (1997). Cognition and depression: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Cognition and Emotion, 11*, 663-673.
- Greenier, K. D., Kernis, M. H., McNamara, C. W., Waschull, S. B., Berry, A. J., Herlocker, C. E., & Abend, T. A.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vity to daily events: Examining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67*(1), 187-208.
- Hammen, C., Marks, T., Mayol, A., & deMayo, R. (1985). Depressive self-schemas, life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308-319.
- Helen Cheng, Adrian Furnham. (2003). Personality, self-esteem, and demographic prediction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4*, 921-942.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0*, 137-142.
- Joffe, R. T., Bagby, R. M., Levit, A. J., Regan, J. J and Parker, J. D. (1993).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major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959-960.
- Jorg Richter, Martin Eisemann. (2002). Self-directedness as a cognitive feature in depressive pati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327-1337.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 R. S. (1981). Comparisons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Kendler, K. S., Gardner, C. O., & Prescott, C. A. (1998). A population-based twin study of self-esteem and gender. *Psychological Medicine, 28*, 1403-1409.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 Kizilary. P. E. (1992). Predictors of Depression in Women.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7*(4), 983-993.
- Kovasa, S. C., Maddi, S. R., & Kahn, S. (1982). Hardiness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68-172.
- Kwon, S. M., & Oei, T. P. S. (1992). Differential caus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309-328.
- Lazarus, R. S. (1990). Theory-based stress management. *Psychological Inquiry, 1*, 3-1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in gentry, W. D(Ed).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Guilford.
- Leslie J. F., & James, D. J.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rosenberg's construct of self-esteem and Eysenck' two-dimensional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1*(4), 483-488.
- Liisa Keltikangas-Jarvinen, Mika Kivimaki and Pertti Keskivaara. (2003). Parental practices, self-esteem and adult temperament: 17-year follow-up study of four population-based age cohor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431-447.
- Lu.L. (1994). University transition: major and minor life stresso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Psychol. Med, 24*, 81-87.
- Maddux, J. E. (1991). Self-efficacy. In C. R. Snyder & D. R. Forsyth(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pp. 57-78). New York: Pergamon.
- Manning, M. M., & Wright, T. L. (1983). Self-efficacy expectancies, outcome expectancies, and the persistence of pain control in childbir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421-431.
- Marijnissen, G. S. Tuinier, A. E. S. Sijben, W. M. A. Verhoeven. (2002).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0*, 219-223.
- Michel Hansenne, Jean Reggers, Emmanuel Pinto, Karim Kjiri, Amar Ajamier, Marc Anseau. (1999).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nd depressio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3*, 31-36.
- Miranda, J., & Gross, J. J. (1997). Cognitive vulnerability, depression, and the mood-state hypothesis: Is out of sight out of mind? *Cognition and Emotion, 11*, 585-605.
- Monroe, S. M., Bromet, E. J., Connell, M. M., & Steiner, S. C.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1-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24-431.
- Monroe, S. M., & Simons, A. D. (1991). Diathesis-stress theories in the context of life stress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 depressive disorders. *Psychological Bulletin*, 110, 406-425.
- Nelleke van den Heuvel, Carolien H. M. Smits, Dorly J. H. Deeg, Aartjan T. F. Beekman. (1996). Personality: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ing and depression in adults aged 55-85?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41, 229-240.
- Olinger L. J., Kuiper, N. A., & Shaw, B. F. (1987). Dysfunctional Attitude and Stressful Life Events: An Interactive Model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25-40.
- Paykel, E. S. (1979). Recent life events in the development of the depressive disorders. In R. A. Depue(Ed.). *The psychology of the depressive disorder: Implications for the effects of stress* (pp. 245-262). New York: Academic Press.
- Peirson, A. R. & Heuchert J. W.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mood: comparison of the BDI and the TCI.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0, 391-399.
- Richard A. Gruzca, Thomas R. Przybeck, Edward L. Spitznagel, C. Rpbert Cloninger. (2003).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 123-130.
- Richard W. Robins, Jessica L. Tracy, and Kali Trzensniewski. (2001). Personality Correlates of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 463-482.
- Richter, J., Eisemann, M., & Richter, G. (2000). Temperament und Character during the course of unipolar depression among inpatients.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250, 40-47.
- Richter, J. Eichmann, M. Richter, G & Clingier, C. R. (1999). Das Temperament und Chairmaker Inventory(tai): *ein Leitfadens über seine Entwicklung und Anwendung*. Frankfurt/Main: Sweets Test Services GmbH.
- Robins, C. J. & Block, P. (1988). Personality vulnerability,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test of a specific intern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47-852.
- Robins & Block. (1989). Cognitive Theories of Depression Viewed from a Diathesis-Stress Perspective: Evaluations of the Models of Beck and Abramson, Seligman and Tess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297-313.
- Robins, Block & Peselow. (1990). Cognitive and life events in major depression: A test of the mediation and interaction hypothes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297-313.
- Sarason. I. G., Johnson, J. H., & Siegal. J. M. (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932-936.
- Scott, J., Harrington, J., House, R., & Ferrier, I. N. (1996). A preliminary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ognitive vulnerability, symptom profile, and outcome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 184, 503-515.
- Shigeki Hirano, Tetsuya Sato, Tomohiro Narita, Kazunori Kusunoki, Norio Ozaki, Satoshi Kimura, Toshihiko Takahashi, Kaoru Sakado, Toru Uehara. (2002). Evaluating the state

- dependency of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dimension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 methodological contribu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9, 31-38.
- Silver, R. L., & Wortman, C. B. (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J. Garber & M. E. P. Seligman(Ed.),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Simons, A. D., Angell, K. L., Monroe, S. M., & Thase, M. E. (1993). Cognition and life stress in depression: Cognitive factors and the definition, rating, and generation of negative lif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4-591.
- Smith, T. M., Boaz, T. L., & Denney, D. R. (1984). Endorsement of irrational beliefs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Cognitive Therapy and Clinical Psychology*, 46, 932-936.
- Stone, S. V. and Costa, P. T., Jr. (1990). *Disease-Prone personality or distress-prone personality?* In H. S. Friedman(ed), *Personality and disease*. New York: Wiley.
- Suzanne E. Luty, Peter R. Joyce, Roger T. Muder, Patrick F. Sullivan, Janice M. McKenzie. (1999). The relationship of dysfunctional attitude to personality in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4, 75-80.
- Svrakic, D. M., Przybeck, T. R., & Cloninger, C. R. (1992). Mood states and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 217-226.
- Takuro Tonita, Hiroko Aoyama, Toshinori Kitamura, Chiharu Sekiguchi, Tadashi Murai, Tatsuro Matsuda. (2000). Factor structure of psychobiological seven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model-revi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9, 709-727.
- Testsuya Sato, Shigeki Hirano, Tomohiro Nartia, Kazunori Kusunoki, Junya Kato, Miho Goto, Kaoru Sakado, Toru Uehara. (1999).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dimensions as a predictor of response to antidepressant treatment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6, 153-161.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65-490.
- Youngs, G. A., Rathge, R., Mullis, R. and Mullis, A. (1990). *Adolescent stress and self esteem*. *Adolescence*, XXV, 333-341.

원고접수일: 2007년 8월 15일

수정원고접수일: 2007년 10월 17일

게재결정일: 2007년 12월 3일

# A Study regarding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ness

Jung-Suk An  
Severance  
Mental Health Hospital

Paul Kyuman Cha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mong stres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elf-directedness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this study, the self-directedness which was proposed by Cloninger(1994) as one of the seven-factor model was assum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447 college students(258 males, females 189) who were recruited from fourteen different universities in South Korea.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such as Cloninger's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based on Cloninger's psycho-biological model,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DeLongins, Folkman & Lazarus(1988)'s Daily Stress Scale were administered to them. The findings were as the follows: First, The female subjects were significantly more depressed than the male subjects. Second, the depressed groups obtained higher scores in harm avoidance, novelty seeking and self-transcendence scales, as well as lower scores in self-directedness, cooperativeness, and reward dependence scales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s. Third, the self-directedness among seven factors of the TCI was identified 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for prediction of depression in female subjects.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ness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was significant in female subjects. This results were suggestive that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cusing self-directedness would be effective for the depressed woman.

*Keywords* : TCI, Stres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pression, Self-Directedness